

무소유(無所有)를 꿈꾼 지상의 새

김혜영*

‘진리’는 한 순간 고요히 피어나는 번개처럼 다가온다. ‘진리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깨어있는 시인에게 화두처럼 따라다닌다. 진리는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서구의 해체철학에서 탐구되었던 요지는 진리의 존재 양상에 관한 것이다. 데리다가 해체시키려 의도했던 것은 진리 그 자체를 해체하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의식 세계의 감옥을 해체하는 것이다.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뿐, 정작 진리를 체화시키지 못하는 서구철학이 도달한 막다른 골목에서의 치절한 지성적 절규였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리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개인의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 변질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센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요즈음 생태론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면서 몸을 필두로 한 동양시학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한국시에 있어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론적 도구들은 주로 서양시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신비평 이후 다양하게 발달해 온 시 분석적 도구들은 아직도 유효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시의 경향 역시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지만 완전히 서구적 경향을 벗어난 경우가 드물었다. 왜냐하면 문학사를 정립하고 기록하는 비평가들이 대부분 서양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어느 정도 그 사유의 틀에 묶여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창적 시학을 개발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전세계가 지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양한 이론이 교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세기말을 건너 다가오는 세기에는 우리만의 독창적 시학을 역수출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학의 탄생을 앞서 전제가 되는 것은 뛰어난 시인의 존재이다. 천양희의 『마음의 수수밭』과 『오래된 골목』은 세계 문학에 내어놓아도 빛날 만큼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는 시집들이다. 고요히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자연스레 피어나는 시의 향기가 온 뜰에 그윽하다. 그녀는 고통의 승화를 통해 90년대 한국시의 깊이를 무한히 심화시켜 시의 정상에 서 있다. 만해 한용운의 불교적 세계관에 관한 사유의 맥을 천양희 시인이 당당하게 잇고 있다. 그녀의 시는 불교적 세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강사

계관에 기초를 하고 있으면서, 섬세한 언어구조와 다양한 층위의 의식 세계를 제시한다. 그녀의 시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얇은 시집이 엄청난 무게를 지닌 것 같다. 내면의 고독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의 작은 사물들과 교접하고 있다. 미세한 사물의 움직임과 흐름에 맞추어 시의 형식이 자연스레 태동하고 있다.

「마음의 수수밭」 시편에서는 그녀의 내면이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는다. 현대인의 자아는 사회가 부여한 자신의 이미지, 자신이 갖고 있는 환상적 자의식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참 '나'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외부 환경에 노출된 것들만이 전부이며, 순간 순간 스쳐가는 심리의 흐름에 따라갈 때가 많다. 「마음의 수수밭」은 자아의 인식 지평을 활짝 열어제친다. 정신이 깨어날 때 들려오는 자아 본유의 목탁새는 의식을 일깨운다. 그 의식은 관념의 벽을 깨고 아집의 벽을 깨고 나와서 천불산과 일체가 된다. 시인의 내면에는 빛이 충만하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짚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天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마음의 수수밭」, (17-22행, 『마음의 수수밭』)

자연과 일치를 이룬 자아, 즉 내면의 참된 자아는 한없는 깊이와 무한함을 전제하고 있다. 미국 시인 에머슨(Emerson)이 주창한 초절주의적 의식 세계에서 주창한 '내면의 빛'과도 유사한 사유이다. 그러나 천양희의 시는 그러한 내면의 빛에 도달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물의 비유에서 찾고 있다. 즉 그것은 아래로 향하는 마음, 겸손과 소박함 같은 것들이다. 그것이 아주 투명하고 힘있게 승화된 시가 「직소포에 들다」이다. 그녀는 폭포 아래 떨어져 내리는 하얀 백색 정도에서 참된 빛을 발견한다. 정상을 향하던 그녀의 의식 세계가 현실 세계와 마주친 빛나는 순간이다.

관음산 정상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정상이란 생각이 든다
피안이 이렇게 가깝다
백색 淨土! 나는 늘 꿈꾸어 왔다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환한 水宮을.

「직소포에 들다」 (5-10행, 『마음의 수수밭』)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이 만들어 내는 물보라에서 그녀는 '환한 수궁'을 직시하게 된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란 폭포 위를 뛰어내리는 물방울들처럼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피빛 고통마저 투명한 빛으로 환희로 승화시켜야 진정한 피안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희망의 빛을 무심히 던지는 그녀는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비어 있음(無)의 세계는 무엇일까? 무의 세계는 해체주의 철학에서 논의되는 방법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 진리를 지칭하는 언어 자체에 대한 회의를 보여준 서구의 철학은 무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성적 방편이 될 수 있다. 무의 세계는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이 체득하게 되는 절대적 경지가 아닐까? 기독교에서 논의하는 말씀, 즉 로고스는 진리 그 자체이지만 시작도 끝도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화된 그리스도 역시 하나의 보이는 현존이지만 그 실재는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싸여있다. 기표와 기의가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차연의 관계처럼 무의 세계 역시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다. 단지 그것을 체득하는 혜안이 우리에게 부족할 뿐이다. 인간 존재가 신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을 그 때부터 무의 세계에 속한 존재이지만 현상적으로 지상적 삶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죄' 역시 섭리라는 수레바퀴의 한 축인 것이다. 불이(不二)의 경지는 차별적 의식, 판단하려는 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경지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이 부처다'라는 관점은 오직 무의 세계, 즉 불이의 경지에서만이 체득할 수 있는 진리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첫째 신이 존재하고 둘째 죄를 지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이원적 관점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죄없는 인간이 있는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생애는 그러한 이분법적 관념을 타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미사를 지내면서 먹게 되는 그의 몸, 진리 그 자체인 성체는 무엇인가? 죄인이 진리를 먹는다? 참된 불이(不二)의 세계가 드러나는 절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이 자신의 몸을 아들딸에게 먹이는 것, 그것은 이미 이원론을 뛰어넘는 합일의 차원이다. 어쩌면 지옥조차도 신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훈련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설명적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교의 전생이론이나 무의 세계관인 것이다.

천양희의 시에서 드러나는 무소유나 공(空)의 세계는 자아의 저 깊은 내면의 밑바닥을 직시한 시인의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숲속길을 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작은 풀잎과 새소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등(無等)의 경지이다. 절대적 합일의 세계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너와 나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의 유명한 법어 '산은 산 물은 물'

처럼 아주 평범한 말씀 속에 진리의 울림이 살아나게 된다. 신이 자연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였고, 제일 영특한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을 지배하게 했다는 창세기를 가장 오용한 사람들은 근대의 서구인들이다. 신이 만든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신은 빵의 형상으로 현현한다. 그 빵은 자연이다. 인간이 지배하는 자연, 과연 서구의 근대적 논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제국주의적 야심, 폭력, 전쟁, 인종차별, 자본주의의 속박 등은 비판되고 해체되어야 할 것들이며, 지배욕과 물욕에 찬 인간의 집단적 이기심이 발동되어 끌어온 역사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들이다.

천양희의 시가 지니는 의미의 깊이는 현대 서구 시인들의 세계관에 필적한 만하다. 엘리엇의 시 “4중주”(Four Quartet)는 정중동(靜中動)의 세계관을 직시하고 있다. 반면 천양희는 공의 세계에서 현존하는 현재에 대한 빛나는 인식을 보여준다. 「空漁」에서는 텅 텅 비어 바람결에 소리를 내는 목어처럼 비어야 살 수 있는 생(生)의 모습을 아름다운 시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절의 추녀에 매달린 목어에서 모티프를 끌어내어 내면을 바다처럼 비운다. 바다처럼 깊은 사랑의 물결 속을 헤엄치다 문득 어부의 그물에 잡히는 억울한 삶이었음에도 텅 텅 비워 버리려는 의식은 고기의 눈처럼 맑다.

속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 없는 생이 어디 있으랴만 나는 속없는 족속이었다
 다 맑은 것이 좋아 푸른 것들이 좋아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텅, 텅, 텅
 비는 소리 등푸른 바다 파도소리 들리는 듯 어디로 갈지 꼬리를 흔들며 아래
 로 자꾸 내려가면 그 끝, 어디 다도해 뜰지 몰라..... 오래 마음을 들어올려 속
 삭이던 무슨 꽃잎 같은 포말을 그 물살을 그리워할 때 바다보다도 깊은 것이
 속이 텅텅 빈 사랑이 물결 사이로 어부들의 그물 사이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나는 속없는 족속이었다.

「空漁」(중략, 『오래된 골목』)

속없는 족속처럼 허망한 삶인 줄 알면서도 삶에 집착하고 애달아하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에 그녀는 잔잔한 성찰과 연민의 시선을 던진다. 그녀의 그나죽하고 고요한 빛살같은 언어는 인간들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을 지닌다. 흔적없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는 바람새의 이미지에서도 나타난다. 무한한 허공을 나는 새는 결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자비의 마음 속에서는 자신의 업적이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하는 법이다. 그러한 마음의 밀자리를 「발없는 새」에서 역설적 어조로 읊고 있다. ‘바람이 불면 바람 속에서 쉬는 새’의 이미지는 인생의 고통이나 고뇌는 끝이 없음을 시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달아나려 하거나 회피해서는 않된다는 시인의 위안이 머문다. 차라리 슬픔의 구렁이에서 타자를 향한 더 큰 슬픔을 끌어안은 태도가 승화의 지름길임을 암시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금 소극적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 비판과 저항의 몸짓보다는 인내와 해탈을 추구하는 수동적 경향이지만 시인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왜 불지?
 바람이 불면 발 없는 새
 발이 없어
 바람 속에서 신다네
 날다 지치면 바람 속에서만 신다네

 바람이 불어, 바람이 왜 불지?
 바람이 불면 바람 속에서 쉬는 새
 바람같이 소리치고 있다네
 내 발 어디에 있지?

하늘을 나는 새는 자취가 없다네

「발 없는 새」(전문, 『오래된 글목』)

바람 속에서 발을 잃은 새가 외치는 소리, ‘내 발 어디에 있지?’는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권력과 명예와 자리에 연연해하는 세속적 욕망에 대하여 예리한 비수처럼 일침을 놓고 있다. 마음 속은 어두우면서 태연한 척, 깨끗한 척, 욕심없는 척하는 삶의 모습들은 힘들고 어려운 하층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놓치기 쉽다. 천양희의 시는 리얼리즘적 시적 태도를 관철하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 끝없이 소외받고 고통받는 마음에 대한 애정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의 시에서 도(道)에 이르는 최고의 경지는 물에서 찾을 수 있다.

물은 노장사상의 비유에서처럼 도의 근원에 닿아 있는 자연 대상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끝없이 내면이 흔들리면서도 잔잔한 물살을 견뎌내는 여유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물은 높고 깊은 산 정상에서 끝없이 아래로 흘러 바다로 이른다. 물방울 하나는 빛에 투영되어 이슬이 되기도 하고 가랑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물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릇에 맞게 자신을 낮추어 존재한다. 도의 실재는 물과 같은 것이다. 천양희 역시 그러한 물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초의 삶과 일치시킨다. 흐르는 물 속에서 물먹고 산 삶에 대한 회환을 토로하면서도 도도하게 흐르는 물을 닮고픈 의지를 담담히 물결처럼 풀어낸다. 깊은 사유의 세계에 걸맞게 이 시 자체가 하나의 물결처럼 느껴진다. 시인은 물결 아래 강바닥에 뿌리를 둔 해초처럼 이리 저리 물살에 휩쓸린다. 지상에 발을 둔 그녀는 해초처럼 일상에 묶여 있지만 물을 따라 흐르고 싶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누가 말했었지요

그래서 나는 물속에서 살기로 했지요
 날마다 물속에서 물만 먹고 살았지요
 물 먹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요
 물보라는 길게 물을 뿜어올리고
 물결은 출렁대며 소용돌이쳤지요
 누가 돌을 던지기라도 하면
 파문은 나에게 까지 번졌지요
 물소리 바뀌고 물살은 또 솟구쳤지요
 그때 나는 웅덩이 속 송사리떼를 생각했지요
 연어떼들을 떠올리기도 했지요
 그러다 문득 물가의 잡초들을 힐끗 보았지요
 눈비에 젖고 바람에 떨고 있었지요
 누구의 생도 물 같지는 않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물같이 사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어려운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걸 겨우 알았지요
 물 먹고 산다는 것은 물같이 산다는 것과 달랐지요
 물 먹고 살수록 삶은 더 파도쳤지요
 오늘도 나는 물속에서 자맥질하지요
 물같이 흐르고 싶어, 흘러가고 싶어
 「물에게 길을 묻다」(전문, 『오래된 골목』)

물처럼 살 수 있는 삶을 희구하면서도 현실에서의 삶은 각박하고 뽀족한 모퉁이처럼 자충우돌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다. 언제나 이상과 어긋나는 삶의 순간들에 상처받고 마찰을 일으키지만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생에 대한 끈끈한 의지이다. 큰 나무 아래 작은 이끼가 자라고 어린 나무들이 햇살을 더 받으려 당찬 의지로 일어서는 삶, 순환하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고리를 시인은 환하게 꿰어차고 있다. 「추월산」은 자연의 모성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와 깊이로 페미니즘적 세계관의 오묘함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 이래 남성 주도로 이루어져 온 발전과 진보의 논리 속에서 소외받고 억압받은 여성의 삶이 오히려 더 본성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람이 먼저 능선을 넘었습니다 능선 아래 계곡 깊고 바위들은 오래 묵묵합니다 속 깊은 저것이 모성일까요 온갖 잡새들, 잡풀들, 피라미떼들 몰려 있습니다 어린 꽃들 함께 깔깔거리고 버들치들 여울 타고 찰랑댁니다 회화나무 그늘에 잠시 머물니다 누구나 머물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고 물소리는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이 저렇게 태연합니까 無等한 것이 저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저 무량수궁 오늘은 물소리가 더 절창입니다 응달 쪽에서 자란 나무들이 큰 재목 된다고, 우선 한소절 불러드립니다 자연처럼 자연스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저물기 전에 해탈교를 건너야 합니다 그걸 건너다고 해탈할까요 바람새 날아가다 길을 바랍니다 도리천 가는 길 너무 넓고 하늘을 넓으나 공터가 아닙니다 무심코 하

늘 한번 올려다봅니다 마음이 또 구름을 잡았다 놓습니다 산이 험한 듯 내가
과파됩니다 雉俗고개 다 넘고서야 겨우 추월산에 듭니다

「추월산」(전문, 『오래된 골목』)

기술 산업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막강한 육체적 힘이나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보다 섬세하고 순발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이건 개인적이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나 근원에 있어서는 즉 시작도 끝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무등의 세계이며 불이의 세계이다. 현상계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맹목적인 편견도 팽배하다. 여성은 성불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사유를 가진 사람도 많다. 그것은 제도가 낳은 한계의 닳일 것이다. 불교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소견이다. 왜 하찮은 미물에게서보차 불성을 발견하는 데 여성은 성불하기 어렵다는 사고를 하는가? 천양희의 시는 그러한 왜곡된 의식세계를 전복하는 혁명적 시상을 조용히 전개하고 있다. 자연이 갖는 모성성이 곧 도(道)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에는 남성들의 의식이나 삶의 행태 속에서도 그들 안에 내재한 본성 가운데에서 모성을 발현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나 의식의 전반에 걸쳐 더 이상 지배적인 힘으로서 작용하는 권력은 그 의미를 잃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권력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서는 않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하면서도 계속되는 인류 역사의 모순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숭고한 모성성이 첨가되어질 필요가 있다. 자연의 모성은 높은 자, 낮은 자, 있는 자, 없는 자를 끌고루 싸안을 수 있다. 거대 권력 뿐만 아니라 미시 권력의 차원에서 모성적 원리가 발현되어야 한다. 부드러운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며 비겁한 것도 아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부드럽다. 「추월산」에서 보여주는 모성적 자의식은 큰 나무, 작은 나무, 산과 계곡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마음 속에 껴안은 품성을 보여 준다. 해탈이 결코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지옥같은 고통이 얼룩진 이 세상에서 천상의 빛은 변함없이 영원히 비치고 있음을 말한다. 천개의 손을 지닌 관세음보살처럼 세상의 굴곡을 쓰다듬고픈 모성적 본능이 내재화된 시이다.

「숲을 지나다」 시에서도 이러한 모성성이 구체화되어 있다. 파릇한 새순이 돋는 오월의 숲속을 거닐다가 그는 무등한 자연을 깨닫고 그 곳에서 어머니를 떠올린다. “잡목숲에/ 내려앉은 어둠의 속. 비탈길 올라가는 숨찬 生의 속/ 不二, 不二 하며 나를/ 향해 두 눈을 부라린다. 이제야 너와 내가 無等임을/ 알겠다. 무소새 한 마리 문득, 숲에서 달려나온다. 이/ 시간에, 나는 왜 어머니 생각이 날까. 초록세상이 이/렇게 좋다. 숲을 지나며 나는 말끝을 흐린다. 더 갈/ 곳이 없다!”

라는 시구절에서처럼 그녀에게 오월의 숲속은 무등의 경지, 불이의 경지로 구현되어 나타나며, 그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개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자비와 사랑이라는 보편적 진실에 닿아 있다.

승고한 모성성은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적 부성성의 본질에 닿아 있다. 거룩한 하느님의 몸은 아들 딸에게 자신의 살, 즉 거룩한 빵(성체)을 먹여주고 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드라운 젖을 먹이듯이. 천양희는 세기말의 어둠을 뚫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응시함으로써 홀로 시의 정상에 바람새처럼 오르지만 정상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녀가 탐색한 내면의 자아와 자연은 한국시의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이다. 현상에만 연연해하는 표피적 반응들, 왜곡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허상을 쫓는 발걸음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그녀의 시는 갖고 있다.

그녀가 처절하게 쌓아올린 고통의 탑을 던지고 새롭게 시의 성채를 쌓아가는 시인의 빛나는 눈동자가 떠오른다. 그 어떤 시인도 전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이미 너이며 더 나아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Eliot, T. S. *The Complete Works of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8.
 Emerson, Ralph Waldo. *Emerson's Essays*. New York: Thomas, 1926.
 이성철. 「산은 산 물은 물」 서울: 밀알, 1983.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천양희. 「오래된 골목」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 Abstract

A Bird to Dream "Nothing"

-Chun, Yang-hee's *The Millet Field In Heart* and *The Old Alley* -

Kim, Hye Young

Chun, Yang Hee, the Korean woman poet, gained not only the best literature award, The Sowell Poem Prize, in 1996 but was also awarded the splendid, The Modern Literature Prize, in 1998. Her poetry was so wonderful in view of poetic techniques and unique imagination that many junior poets try to follow her. Especially the two collections of poems; *The Millet Field In Heart* and *The Old Alley* represent the Buddhist insight toward human being and nature.

Above all she deepens her inner mind more profoundly than any other contemporary Korean poets. Some critics say that she depends on Buddhism's idea and inherited tradition from other spiritual poets such as Han, Yong Un. Trying to save her own soul or other oppressed people, she hides in nature, or sometimes dwells in water like waterweed. While solving inner solitude with conflicts, the poet communicates with the small things in nature. At last the poetic self came to unite with nature so that it obtained infinity, which resembles Emerson's 'inner light.'

In her poetry, "nothing" is the main idea that came from Buddhism and other oriental Philosophy. Whole things in nature have just same equality which concept is different from western philosophy, because they said that only the human being has unique right and equality. But Chun, Yang Hee insisted that the motherhood of nature hugs all suffering things and makes them comfortable. Through the absolute union with nature, the discrimination between you and me disappears even though you and I still exist separately. So Whole things in universe have already infinite freedom and limitless charity. That is the world of "nothing". The poet searches for nothing in her poems insistently, like a monk of language forever.

